1. 메인 웹 클라이언트(로그인 하는 서버)가 필요없다. 왜냐하면 굳이 외부 서버로 메인모듈과 스피커모듈의 ip를 보내고 스피커모듈의 ip를 메인모듈로 보내는 멀리 돌아가는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. 로컬 네트워크에서 arp프로토콜 같은 것을 이용하여 메인모듈과 스피커모듈의 ip를 알아내거나 cctv에 접속하듯이 잘 설정하여 직접 연결할 수 있다. 다만 공유기의 DNS 설정이 필요할 것.(iptime.org/~~~같은걸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)

하지만 앞으로의 확장을 고려하면, 예를 들면 대본게시판 기능, 유저의 대본 업로드, 어떤 대본인지는 모르는데 특정 대사만 가지고 대본을 찾을 때(다만 이때에는 적절한 DB를 사전에 구축을 해 놓아야 할 것)와 같은 상황에선 웹 서버가 필요할 수도 있다.

사업을 할 것도 아니므로 편의성을 고려한 구현은 제쳐두고 핵심 기능을 우선으로 구조를 짠다.

유저🡨🡪메인모듈🡨🡪스피커 (메인모듈에 모든 대본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)

대사를 하나씩 하나씩 보낼지 아니면 처음에 전부 다 보낼지 결정해야한다.

testcase는 usecase로부터 뽑을 수 있는 모든 테스트 가능성을 뽑아야한다.

ex) 스피커 3개중에 1개만 역할 할당을 했다. 이러한 경우에 잘 작동되는가? 에 대한 자세한 testcase => 사용자가 무엇무엇을 했더니 무슨 알림 창이 뜨고 무슨 문구가 뜨고 무슨 화면이 뜬다.